

광산구 지역발전협약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균형발전위 시범사업 '공기정화 기술개발 사업' 공모 신청 KT와 미세먼지 통합환경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교통량이 많고, 하남산업단지, 광주공항, 호남고속도로 등이 있어 광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광산구는 19일 KT 전남본부(본부장 오기섭)와 '미세먼지 통합환경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KT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 시설을 공기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대응책이다.

광산구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달 15일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공기정화 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을 신청했다. 광산구 소재 기업 및 지역 산학기관과

함께 2019~2021년 3년 동안 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 기술 개발 ▲시범실증단지 구축 및 검증 ▲공기산업 특화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균형발전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KT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구와 실외 공기 질 측정기와 관계 솔루션 등 서비스플랫폼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 예측 자문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잡아 시민 삶을 안전의 반석 위에 놓고, 공기산업도 육성해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 창출해 보이겠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 속에 시범사업 선정과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 시범사업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27개 사업을 접수했으며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2448t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가장 낮았으며,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에는 광산구가 871t(35%)으로 발생량이 가장 높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구, '청년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워크숍

광주시 동구는 "지난 16일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본격추진을 위해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동구 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청년네트워크를 다양한 청년계층 참여로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 신규위원을 공개모집했다.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창업자·청년활동가·문화기획자 등 만 19세부터 39세 동구 거주 또는 활동 청년 30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2019년 청년정책 추진사항 공유

▲향후 활동방향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년네트워크는 앞으로 1년 동안 참여 활성화,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청년정책 제안, 구정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다.

또 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0일 광주공영마루서

광주시 수요인권강좌

광주시가 주관하는 수요인권강좌의 올해 첫 강연이 20일 오후 3시 광주공영마루(옛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이 '모두가 포함되는 인권도시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성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김 소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엔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한국다양성연구소장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월 24일은 결핵의 날...광주시 결핵예방 캠페인

제9회 결핵예방의 날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결핵!

제9회 결핵예방의 날 무료 건강검진

검진과목 : 흉부X-선, 혈압, 당뇨, 금연상담

일시 ▶ 2019. 3. 18(월) 10:30 ~ 12:30 장소 ▶ 송정5일시장 내

광주시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8일 민·관 합동으로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결핵의 날'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 되던 1982년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결핵의 날과 같은 날인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광주5일시장과 송정매일시장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시, 5개구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민간·의료기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북구, 본촌·첨단산단 노후 기반시설 정비

광주시 북구는 "국·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촌·첨단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역 국·시비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시설정비 사업은 현장에서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이를 사업에 반영한 현장중심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5억 원을 들여 첨단1·2산단 상습 침수지역 7곳을 대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본촌산단·첨단산단 내 파손된 도로, 인도 등 3개 구간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사전대비한다.

또한, 1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첨단1단계 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수렴, 5억 원을 투입해 산단 내에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나무심기 사업과도 연계해 사업대상지 주변 나무심기 밀도를 높여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숲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구 워터코리아 광주 수돗물 우수성 알린다

시장수도본부 '빛여울수' 홍보관 운영·연구사례 발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19 워터코리아(WATER KOREA)'에서 광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사기간에 홍보관을 운영해 광주 수돗물 '빛여울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물을 비치해 맑고 깨끗한 광주 수돗물을 알릴 계획이다. 특·광역시 수질연구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수도 연구 발표회에서는 수질연구소 강인숙 연구기획팀장이 정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전산유체역학과 실험계획법을 연계한 플록형성지 분배수로 최적화 방안 도출 연구'라는 제목의 우수 연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2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워터코리아(WATER KOREA)는 상·하수도 신기술 기자재 전시회로,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학술발표 등도 진행된다. 관련 기업들의 기술홍보와 첨단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산업 관련 최대 박람회로 성장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내외 물 산업의 현주소와 동향, 미래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빛여울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봄철 환절기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시보건환경연 모니터링...인플루엔자바이러스 증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영관)은 19일 "봄철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리노, 메타뉴모바이러스 등과 같은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국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표본검체를 확보하는 등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병원체 감시결과, 다소 주춤하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리노바이러스와 메타뉴모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노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가장 흔한 감기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코감기라고 불리며, 주요증상은 인후염, 콧물, 코 막힘, 기침으로 근육통, 피로, 두통, 식욕감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서 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나 타액 등을 통하여 전파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진종 감염병조사과장은 환절기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온도와 실내온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고른 영양섭취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보호 종료 아동에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광주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18일부터 본인 또는 대리

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후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해 내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적합
- 22600평중 지분 2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5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문의. 010-3605-5000